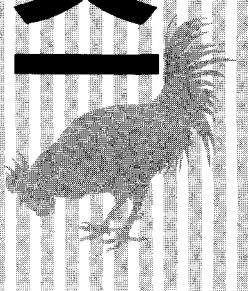


WORLD



해외양계 뉴스



유럽연합(EU)

계란의 난황색과 닭다리 색도가 낮아진다

유럽연합(EU)에서는 미래의 닭다리 색과 계란의 난황색이 그 동안의 진한 황색과 오렌지색에서 얇은 색으로 변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EU가 계란과 육계에 착색제로 사용해 오던 크산토필의 일종인 캔사산틴(canthaxanthin)이 인간의 시력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오는 2003년도 12월 1일부로 사용량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유럽공동체(EC)는 이러한 위험에 인간이 노출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동안 캔사산틴은 사료 1kg에 80mg까지 최대 사용할 수 있었으나 12월부터는 육계사료의 경우 25mg, 산란계사료의 경우 8mg으로 제한되며, 수입산물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미국

식료품 매장에서의 닭고기 판매 57%

미국계육협회(NCC)가 2001년 동안 닭고기 판매처를 대상으로 닭고기 판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료품 매장에서 닭고기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매장(재래시장 등)과 식당(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식료품 매장이 전체 닭고기 중 57%에 달하는 닭고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점은 40%의 점유율을 보였다. 음식점 판매량 중 패스트푸드점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매장 중 재래시장에서는 24%의 닭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닭고기 소비량은 1년에 1인당 약 36.4kg(지육기준)을 소비하고 있다.(WP)

러시아

닭고기 수입관세 35%, 쿼터물량 75만톤 검토

러시아에서는 수입물량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이를 억제하고 자국내 닭고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관세를 올리고 수입쿼터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지난 2001년에 국내 생산량 보다 53%가 많은 139만톤의 가금육을 수입하였고 2002년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브라질 등 타국에서의 수입이 늘면서 앞으로 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하였다. 따라서 수입관세는 현재의 25%에서 35%로 늘리고, 매년 75만톤의 수입쿼터 물량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정부에 받아들여져 공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WP)

북아프리카

닭고기 소비율 전체 육류의 40~44% 차지

북아프리카의 양계산업은 최근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면서 전체 육류 소비중 닭고기 소비율이 40~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마다 가금육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튀니지아의 경우 4년동안(1997-2001) 42%가 증가한 107,800톤을 보인 것으로 세계식량기구(FAO)는 전하고 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세개국(모로코, 알제리아, 튀니지아)은 모두 자급자족을 하고 있으며, 튀니지아의 경우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이 28kg인데 이중 닭고기 소비량은 12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P)

베트남

카길 사료회사 시장 확대

카길사가 베트남의 응엔지방과 메콩강 유역에 각각 2개의 새로운 사료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세획장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5개의 사료공장에서 7개의 사료공장으로 확대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카길사가 베트남에 첫 발을 디딘 것은 지난 1995년 호치민과 하노이에 사료공장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베트남 카길 유한회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근 7년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오고 있다.(AP)

태국

미국의 닭고기 수출에 따른 피해우려

태국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의 닭고기 수출입과 관련하여 자국내 수출에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아리조나주 3곳에서 뉴캣슬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으며, 이후 다시 수입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돼지고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조건으로 닭고기의 수입을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협상이 진행되면서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공략을 노리고 있는 태국으로서는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따라서 태국 정부는 유럽에서도 돼지의 열병 등이 발병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무역 협상은 교활한 처사이며, 공정한 무역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AP)